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튼튼생활체조	40 생생정보통 플러스(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50 황금의 펜타콘 2(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영상기행 한국의 명소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40 뉴스 특급	00 연중기획 빛고을 아카데미	00 엄마의 탄생(재)	00 MBC 네트워크 특선 〈농업에 길을 묻다 1부〉 55 꾸러기 식사교실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콘서트 필(재)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00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		00 KBS 뉴스 10 역사저널 그날(재)	00 키오카(재)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5 헬로키즈 아하 과학탐험대2 55 내사랑 뚱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
4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시사진단 55 튼튼 생활 체조(재)	00 TV유치원 콩다콩 30 두리둥실 뭉게공항2(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피	00 외계가족 졸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10 '빛날'스페셜(재) 20 광주MBC 창사50주년 〈공재 윤두서 300년만의 만남〉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2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내조의 여왕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0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00 월화 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SBS 대기획 〈비밀의 문〉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200회 기획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 다큐 〈그 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3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40 먹거리 X파일(재)	50 T타임 50 알약톡톡 ①:10 다큐공감(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해외걸작드라마 〈아틀란티스- 분노의 여신들〉 ①:4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45 살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40 바비킴·이루마의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EBS

05:00 World News Review
05:40 나의 성공비결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코코몽2(재)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두다다쿵(재)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곰디와 친구들
09:05 원더 볼즈(재)
09:20 출동 슈퍼윙스(재)
09:35 빼꼼
09:40 부모 〈부모광장〉
10:10 EBS 특강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생활백과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3:50 사이틴(Sci-teen)
14:00 두키 탐험대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4:45 코코몽2
15:00 신다는 요정 학교
15:15 지구를 지켜라
15:30 올리비아
15:50 피터 래빗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두다다쿵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지파이터스
19:30 EBS뉴스
19:50 EBS 음악기행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가을낭만기행, 스코틀랜드〉
21:30 한국기행 〈진주만〉
21:50 EBS 다큐프라임〈가족쇼크〉
22:45 달라졌어요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화산기행〉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FLA1

00:00 알짜 국어 문법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Ⅰ〉
02:30 〃 〈수학 Ⅰ〉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04:10 〃 〈사회〉
05:00 〃 〈한국사(상)〉
05:50 2013 포스 〈수학 Ⅰ A형〉
06:40 압축탐스런 〈물리 Ⅰ〉
07:30 2014 포스 〈문학 Ⅰ〉
08:20 올림포스〈영어독해의 기본 Ⅰ〉(재)
09:10 〃 〈수학 Ⅰ〉(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10:50 2013 포스 〈수학 Ⅰ A형〉(재)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2:1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5 〃 〈영어-듣기〉
14:0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Ⅰ〉
14:50 〃 〈수학 Ⅰ〉
15:40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재)
16:30 〃 〈사회〉(재)
17:20 〃 〈한국사(상)〉(재)
18:10 포스(삼) 〈수학 Ⅰ A형〉
19:00 압축탐스런 〈물리 Ⅰ〉(재)
19:50 포스 〈문학 Ⅰ〉(재)
20:5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1: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22:00 〃 〈영어-듣기〉
23:00 2014 포스 〈화법과 작문〉

EBSFLA 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07:30 나의 성공비결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 강좌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수학 1(상)〉
10:30 〃 〈역사 1〉
11:10 〃 〈국어③④〉
11:50 〃 〈수학 2(상)〉
12:30 등업신공 〈수학1(상)〉
13:10 〃 〈수학2(상)〉
13:50 〃 〈과학2(상)〉
14:30 〃 〈수학2(상)〉
15:20 만점왕 〈국어3-2〉
15:50 〃 〈국어4-2〉
16:20 〃 〈국어5-2〉
16:50 〃 〈국어6-2〉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18:00 TV 중학 〈문학 3〉
18:40 〃 〈비문학 3〉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등업신공 〈수학3-2〉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24:00 백점공략 〈수학 1〉
24:30 〃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4일(음 10월 3일 己亥)

子 36년생 발전을 기약하게 되리라. 48년생 초심을 잃지 말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60년생 쉼 없이 구르는 돌은 이끼가 낄 틈이 없느니라. 72년생 한 번 더 생각 하자. 84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0, 15

丑 37년생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49년생 쉽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61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73년생 설익은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겠다. 85년생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4, 21

寅 38년생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50년생 돌발적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2년생 지속 가능해야만 의미를 갖게 된다. 74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7, 78

卯 39년생 진흙탕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보인다. 51년생 지난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 오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 63년생 관재구설을 주의 해야겠다. 75년생 도모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05

辰 40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52년생 의외의 결과물 앞에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다. 64년생 다자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이 연쇄적인 효과를 낳는다. 76년생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79, 58

巳 41년생 기대 했던 것은 이미 물거품이 된지 오래다. 53년생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 65년생 발전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니라. 77년생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다가 올 일에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59, 69

午 42년생 빈번하게 이동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54년생 지금 할 일을 미룬다면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66년생 쾌재를 부르는 날이 되리라. 78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45

未 43년생 주변의 잡다한 제반사를 차치하고 핵심 현안에 집중하자. 55년생 부수적인 것에서 강한 행운의 암시가 있다. 67년생 고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느니라. 79년생 알뜰하고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7, 52

申 44년생 협력하여 처리한다면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56년생 깊이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 수 있다. 68년생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80년생 검은 구름이 걷히고 있으니 곧 해가 떠오르리라. 행운의 숫자 : 20, 38

酉 45년생 평소에 마음먹었던 바를 실행하게 되는 판국이다. 57년생 조언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69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81년생 불합리하다면 반드시 제어 되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70

戌 46년생 마음은 있으나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다. 58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70년생 전체를 볼 줄 아는 국량이 필요하다. 82년생 침착하게 대응해나간다면 오히려 빠르리라. 행운의 숫자 : 29, 75

亥 47년생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으리라. 59년생 방법을 달리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71년생 무리 없이 조절할 수도 있음을 참작하자. 83년생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2,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관객과 만나고 싶어 어깨 부상 이겨냈죠"

이정재, 영화 '빅매치' 서 액션 투혼

현재 충무로에서 가장 흥행 타율이 좋은 배우 중 한 명은 이정재(41·사진)다.

1298만명을 모은 '도둑들'(2012)로 빅히트를 친 그는 '신세계'(2013)와 '관상'(2013)에서 각각 468만명과 913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충무로 믿을 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정재는 날렵한 도둑(도둑들)이었다가, 마음 여린 조직의 2인자(신세계)였다가, 잔혹한 수양대군(관상)으로 변신하며 흥행에서도, 비평에서도 성공했다.

이번엔 게임 같은 액션 영화를 선택했다. '고고 70'(2008)의 최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빅매치'다.

이정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몸을 쓰는 최익호 역을 맡았다. 생각보다는 몸이 앞서는 힘 좋은 격투기 선수. 무쇠처럼 단단하고, 표범처럼 날렵한 파이터다.

말로 하거나 쓰기는 쉽지만 그걸 몸으로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불혹을 넘긴 이정재로서는 부담이 컸다. 이정재는 "답이 없었다. 열심히 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영화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무려 5개월에 걸친 긴 준비기간이 시작됐다. 오전에 근력 운동, 오후에 격투기 훈련으로 이어지는 6시간의 강행군이었다. 그러다 불상사가 빚어졌다.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 격투기 훈련 도중 어깨를 다친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통증을 느끼고 2주 후에 병원에 가보니 어깨 인대가 4㎝가량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을 권했다. 촬영이 코앞이었던 그때, 이정재는 고민에 휩싸였다.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제작사에서 촬영 중 상태가 악화돼 촬영 중단이 되더라도 일단 '가자'고 했어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은 큰 결정이었죠. 저 때문에 지연되면 제작비가 늘 게 뻔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끝날 때까지 별 탈 없이 진행됐어요."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그는 "아직도 재활 중"이며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는 않다"고 했다.

"일단 운동한 게 아까웠어요.(웃음) 운동을 하다 보니 앞으로 더는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며 액션장면을 소화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관객분들에게 지금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영화에는 그의 이런 노고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구르고 뛰고, 점프하며 수십 명을 일망타진하는 익호의 액션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볼거리다. 거침없는 익호의 액션은 영화의 빠른 리듬과 뒤섞인다. 그리고 그 정점은 익호가 경찰서를 탈출하는 첫 액션 시퀀스다.

최근 '흥행제조기'로 거듭났지만, 이정재는 골방에서 작품만 고르며 시간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매년 영화를 찍었던 그는 '태풍'(2005) 이후 2~3년에 한 편꼴로 스크린 '나들이'를 했다.

"3년에 한 편 정도씩 했나요? 워낙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설령 들어온다고 해도 제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작품을 좀 가렸던 것 같아요. 제 약점이 드러나는 영화들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요즘은 스태프에게 훨씬 기대요. 기대다 보니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오랜만에 복귀한 후 현장에서 뭐든 열심히 하는 영화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더 해야겠구나"라는 반성도 들었다고 한다.

더 나은 연기를 위해서는 "생각의 확장과 그에 따른 신체적 훈련"이 필요했고, 그런 실천 속에 조금씩 연기가 늘었다. 나이를 먹고 슬럼프를 겪으며 자연스레 체득한 삶의 지혜였다.

한지붕 다가족 … 우여곡절 인생이야기

KBS '당신만이 내 사랑' 오늘 첫 방영

혼자 사는 이들이 450만 명을 웃돌면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주거형태가 바로 셰어하우스다. 혈연도 지인 관계도 아닌 이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24일 오후 8시25분부터 방송되는 KBS 1TV '당신만이 내 사랑'도 셰어하우스를 모티브로 한 일일연속극이다. 진형욱 PD는 "피는 안 섞였지만 셰하우스를 통해 새롭게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우리 드라마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또 그들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이들이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버림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희망이 생겨나고 어떤 단위의 가족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뼈대는 평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고 당찬 여자 주인공이 외적인 조건은 완벽하지만 이성에는 흥미가 없는 남자 주인공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내용이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을 넘보는 또 다른 여자가 삼각관계를 구성한다.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집안 사정 때문에 유명 PD에서 청과상이 된 여주인공 송도원은 한채아(32)가 연기한다.

독신주의를 고수했으나 송도원을 사랑하게 되는 유명 요리사 이지건으로 화제작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에 출연했던 성혁(30·홍성혁)이 분한다. 툭하면 사고를 치는 부녀 송도원-송덕구(강남길 분)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돈에만 매달리는 중년 여성 오말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 외국인까지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드라마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코피노 문제도 얹었다. 송도원의 셰어하우스 식구인 코피노 남순 버젤리오 리(한국명 이남순)가 그리워하던 아버지 '미스터 븅'이 대형 유통업체 대표이며 이지건의 아버지로 밝혀지는 내용도 이야기의 중요한 갈등 구조다.

코피노 이남순 역의 김민교(40)는 "코피노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에 다큐멘터리도 보고 필리핀에서 코피노들을 직접 만났다"면서 "자칫 잘못 연기해서 코피노를 가볍고 우스운 소재로 보이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민 감독 '명량' 대종상 작품상 등 4관왕

남우주연상 최민식· 여우주연상 손예진

김한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명량'이 제51회 대종상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다.

'명량'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홀에서 열린 제51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 기술상, 기획상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모티브로 한 '명량'은 역대 최다인 1760만명을 모으며 한국영화 흥행 역사를 새롭게 썼다.

김한민 감독은 "'명량'이 화합과 치유의 영화가 되길 바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소원한다"고 했고,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최민식은 "그분(이순신)의 발자취를 좇으며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다.

11개 부문에 올라 최다 부문 후보로 지명됐던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은 시나리오상, 여우조연상, 신인감독상 등 3개 부문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김성훈 감독의 '끝까지 간다'는 감독상과 촬영상, 조명상을 가져가며 역시 3관왕에 올랐다. '해적 : 바다로 간 산적'의 손예진은 여우주연상을,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유해진은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신인남우상은 '해무'의 박유천에게 돌아갔고, '인간중독'의 임지연은 신인여우상을 차지했다. 공로상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회고전의 주인공이었던 정진우 감독에게 수여됐다.

/연합뉴스